2017년 **세 번째 호** (통권 20호)

별마을 이야기

(星村, 별 **성** 마을 **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가치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우리의 2017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Healing

여름휴가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아! 휴가를 못 떠나신 분들도 있다고요?ㅜㅜ 꼭 연휴가 아니더라도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라면 단 하루라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회사 및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마을 직원들도 2017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남은 하반기에도 으쌰! 으쌰! 하기 위해 직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Time

Again

“벌써 반이나 지났나!!” or “아직 반이나 남았다!!” 어떤 말이 우리에게 더 힘이 날까요? 모든 일이 마음먹기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2017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신 것들 모두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요~^^

Refresh

– **조명규** 사회복지사 –

마음의 소리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서로 툭 터놓고 마음 속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경청하고 때로는 공감하며 함께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인 소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카페로 通한다!"

별마을에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통카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페라고 하면 아늑한 공간에서 달콤한 커피 향과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마을의 소통카페는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수평적인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나 소통카페가 열립니다.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를 사서 함께 마시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야구장에 가서 열띤 응원을 하며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합니다.

조용한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차와 커피를 마시며 고민거리를 나누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며 산책을 거닐기도 합니다.

소통카페가 보기에는 작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소통이라는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 정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그 밑바탕에는 소통이라는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과 좋아하는 관심사를 찾아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소통카페**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김기철** 사회복지사 –

OPEN! 별마을 체험홈
입주준비, 그리고 아직은 낯선 동네

입주자 모집

자립하기 전에 걱정이 앞서나요? 자립을 준비하고, 혼자 힘으로 살게 된다면 어떨지 알고 싶으신가요?
당신을 위한 체험홈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성촌의집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입주자 모집에 대한 것은 2017년 두 번째 호(통권19호) 별마을 이야기 참조)

6월. 체험홈 입주를 위한 가족들의 준비가 시작되었죠. 그 동안 체험홈의 입주자가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들만 선정되었다면,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자립 및 체험홈 입주에 대한 꿈은 있지만 휠체어 사용이나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으로 항상 입주자 선정에서 멀어졌던 분들 모두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입주자만 성촌의집 30여명의 가족 중 18명! 체험홈에 정식 입주에 앞서 단기체험을 해보는 5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죠.

선정된 가족들은 모두 사진으로만 알아왔던 체험홈에 가서 아파트 몇 호 몇 층인지, 방 크기는 어떤지, 물건은 무엇이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단기체험에 대한 이용 코스 설명을 들은 후, 체험홈 입주를 준비하는 첫 단추로 '내가 살 곳은 내가 청소'도 했죠. 이후 동네가 어떤지 지역사회탐방으로 둘러보며 식당에서 밥도 먹고 가게도 이용하였습니다.

체험홈을 직접 보고, 동네를 다녀본 소감은요?

성촌의집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노래 부르던 분의 '성촌의집이 더 좋다, 편하다' 는 말. 아파트는 좋은데. 동네를 다니기에 성촌의집보다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길의 불편함은 걷기 평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대한 낯섦이 아직은 큰 것이었습니다.

체험홈을 계속 가보고 싶으세요?

새로운 동네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가보고 싶다고 모두들 대답하셨습니다.

이로써 체험홈을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어졌습니다.
체험홈 단기체험 그룹은 새로운 동네에 익숙해지기 위해 지역사회탐방코스(동네둘러보기)와 아파트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숙박코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별마을 가족들의 낯선 동네 적응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바랍니다~!!^^

– **김기철, 최새롬** 사회복지사 –

가자! 떠나자! 우리끼리!

모두가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반복되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은 계절 여름(夏)!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지만 성촌의집에서는
별마을 가족과 직원이 삼삼오오 모여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끌벅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 열기는 한여름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시선이 마주친다면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캠핑, 전주, 경주, 계룡산, 경상도 일대, 제주도 그리고 해외까지!

우리나라에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 여행지 선정이 쉽지 않았어요.
여행만 다니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ㅋ

별마을 가족과 직원이 함께 즐거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여행지별로 회의를 진행했어요.

"우리 여행을 며칠 동안 갈까요?"
"당일치기!", "그건 너무 짧아!",
"10일이요",
"그렇게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ㅜㅜ"
"우리 뭐타고 여행 갈까요?"
"고속버스!", "KTX!", "KTX는 비싸!",
"그럼 자동차!"
"우리 거기서 뭐 먹을까요?"
"바다에 갔으니 회를 먹어요!",
"삼겹살! 삼결살!", "난 고기 싫어~;;"

여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향할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직접 찾아보고 계획을 세우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론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는 나날을 즐기고 있어요.

올 한해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누군가가 계획한 여행이 아닌 '**내가**', '**우리가**' 계획한 여행!
즐겁게,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즐거운 추억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 **최원준** 사회복지사 –

별TALK

인천부평구청장상 수상

2014년 2월 초에 입사하여 "처음처럼" 이라는 말과 같이 항상 마음을 한결같이 이용자분을 대하고 직원과도 큰 문제없이 잘 지내도록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사회복지사로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업무로 인해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행복이 성촌의집 모두와 함께 나눈다면 더 큰 행복이 아닐까요? 항상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태은실 사회복지사]

우리는 별마을 환경지킴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별마을은 십정2동에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별마을 환경지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치회원들이 모여서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와 담배꽁초, 재활용이 필요한 쓰레기들을 분류하며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마을 환경지킴이 활동은 꾸준하게 계속됩니다. 응원해 주세요~!

[환경지킴이 이영준]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성촌아카데미 신입생 2기 모집!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성촌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경제학교, 요리교실, 미술교실, 봉사자아카데미, 책 읽기 모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성촌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연락주세요. 인원 수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문의 : 032)422-0573**

사랑의열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stargram

sungchon ···

♥ 좋아요 5,566개

sungchon #500원에 2곡 #코인노래방 #신세계

평소에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면 노래방에 가서 2만5천원을 내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코인노래방이라는 곳을 갔다. 천원에 노래를 3곡을 부를 수 있었다. 이런 곳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지금껏 노래방에서 썼던 피 같은 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코인노래방이라는 곳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음 주말에도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야겠다.

sungchon ···

♥ 좋아요 6,005개

sungchon #최신형 스마트폰 #카카오톡 #데이터 귀신

D-day 0! 오늘은 바로 기대했던 핸드폰을 사는 날이다. 같이 사는 형들이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많이 부러웠는데 오늘 나도 핸드폰이 생겼다~ 핸드폰가게에 가서 월살지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샀다. 노래도 듣고 게임도 재밌으니까~ 사은품으로 화장지세트도 받았다. 기분이 두배로 좋았다~ 집에 가면 형들한태 자랑도 하고 전화번호들도 저장해서 전화해봐야지~ㅋ

소소한 일상

sungchon ···

♥ 좋아요 4,576개

sungchon #나 홀로 브런치!! #혼밥

우리 집 뒤편으로는 세탁소가 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공사를 뚝딱뚝딱 하더니 편의점으로 변신했다. 원래 근처에 슈퍼만 다녔는데 편의점은 라면, 음료수, 빵 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더 좋았던 것은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출출한 오늘도 편의점에 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을 사먹었다. 가끔씩 입맛이 없을 때 여기 와서 사먹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자주 애용해야겠다.

sungchon ···

♥ 좋아요 3,585개

sungchon #내 동네 부평은? #열공모드 #쿨쿨 zzzzzz

부평구에 역사를 소개시켜 주는 시간에 참여했다. 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어 좋았고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소중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동내였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주변 지역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다.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고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싶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

인권포럼,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있는가?

(*포럼, 발제자가 주제 의견을 말하면 그에 대한 생각을 토론자와 참여한 패널들이 의견을 말하여 나누고 공통된 의견으로 정리)

보통 장애인시설에서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마음껏 의견을 내지 못할 수 있어 직원과 이용자는 인권교육을 따로 진행합니다. 인권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느끼는 생각, 감정 등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정한 존중과 배려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촌의집은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인권교육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본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생각하는 자리로 인권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전문 인권강사를 초빙하여 서로 간의 고충과 이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직원과 이용자, 직원과 직원, 이용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입장, 생각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문을 얻으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존중. 여러분은 어떨 때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무시하지 않는 거요.", "말을 잘 들어주는 거요.", "존댓말 써 주는 거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귀중하게 대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의 바른 행동이요." , "우리가 나누는 인사" ,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요." ……

자! 그럼 본격적인 성촌의집 인권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건강을 우선시 하는 직원의 입장과 선택을 우선시 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합의된 약속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답은 없습니다. 토론자와 패널들의 생각을 마음껏 말해주세요."

존중, 내 생각을 말해요

– 발제1. 건강과 선택, 무엇을 우선해야 좋을까요? (직원)
– 발제2.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식사가 아닌가요? (이용자)

기다렸다는 듯 높이 손이 올라가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점차 인권포럼에 활기가 띄고 서로의 말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용자는 직원이 건강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을 막을 때 밉고 슬펐던 것, '그만' 이라는 말을 안했으면 하는 것 등이 있고 직원은 이용자에게 먹지 말라고 할 때의 마음은 안타깝고 걱정되고 죄송하다는 것 등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아진 의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식을 적게 먹고 병원 조금가기』, 『간식 적당히 먹기. 간식은 일주일에 2번』, 『간식 양 정하기』, 『간식 먹는 시간을 잠자기 2시간 전인 저녁 8시까지로 하기』,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운동하기』 그리고 하나 더. 『이용자와 직원 서로서로 건강 챙겨주기』
이용자의 입장에서 '직원들은 내 건강에 대해 잘 알지만, 우리들은 직원들의 건강을 몰라요. 서로가 알고 건강을 챙겨줘야 해요.', '직원들이 이용자들의 건강을 챙기듯이 이용자들도 직원들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똑같이, 똑같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차'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이용자의 건강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였고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모두의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 별마을 인권지킴이단 **최새롬** 간사 –

미술관은 살아있다

용성에게 가을이란...
파란 아름다움이다.
PHOTO BY WON YONG SEONG

"연탄"
20대의 나는 까만 연탄이었으나
지금의 나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PHOTO BY LEE YOUNG WOO

영우에게 가을이란...
모든 사물이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쓸쓸함이다.
PHOTO BY LEE YOUNG WOO

위 사진은
성촌의집 이용자가
일상의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별마을공작소

새로운 문화를 창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활동일 것이다. 수많은 고민과 도전을 통하여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감동, 그리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 그래서 별마을 가족들은 문화창작활동에 도전하기로 했다.

스텝 1. 사진에 우리의 생각을 담아보자!

작년에 결성된 별마을공작소의 첫 시작은 바로 이미지다.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장문의 글보다 이미지 하나가 더 큰 감동과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이미지를 보았을 때 나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별도의 설명 없이 표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 언어라고 한다.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메시지를 전달해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별마을공작소의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미지는 곧 사진이기 때문에 카메라촬영기법도 배우고 실제 출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진을 담았다.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서정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이 떨어진 낙엽은 왜 찍으신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낙엽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요. 낙엽 두 개가 같이 모여서 노래해요. 나도 어렸을 때 엄마와 같이 둘이서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이야기 한다. 보통 낙엽이라 하면 가을의 고독과 쓸쓸함을 나타내지만 당사자는 그 이미지로 가족을 담아냈다. 이런 작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감동이 되었다.

스텝 2.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

올해 시작한 첫 도전은 바로 뮤직비디오 제작이다. 기존에 있던 뮤직비디오를 재해석하여 우리들만의 뮤직비디오로 새롭게 만들었다. 영상전문 자원봉사자,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들을 섭외하여 함께 그룹을 지어 그 안에서 배우, 감독, 카메라감독, 시나리오작가 등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나누고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수많은 고민과 아이디어 회의 끝에 우리들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되었고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에 야외상영회를 진행하여 우리의 작품을 뽐내었다. 각기 다른 세 그룹이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각자만의 개성을 뽐내어 영상에 표현했다. 우리의 손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하나의 작품으로 야외상영회에 온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만드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완성을 통해 큰 보람과 성취감으로 다가왔다.

스텝 3. 요리 레시피북을 만들어 보자!

시중에는 다양한 전문적인 요리 레시피북이 많이 있다. 여기서 발상을 전환하여 전문적인 조리도구나 복잡한 과정 없이도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북을 만들기로 하였다. 현재진행중이니 차후에 멋진 요리 레시피북을 기대해주었으면 한다.

– **조주형** 사회복지사 –

이렇듯 별마을 가족들은 별마을공작소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창작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고민을 통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창작활동 별마을공작소**에 대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별마을 메모리즈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 젊음이 넘치는 대학로에 다녀왔습니다. 멋진 노래, 춤, 연기, 배우를 보며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

압화와 냅킨공예를 배우고 있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만들어 더 좋아요~^^

부평구안전체험관에서 여러 가지 재난 환경에서의 행동요령 및 안전 수칙에 대해 체험을 하고 왔어요. 직접 소화기도 사용해보고 탈출도 해보면서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별마을 가족분들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제1회 성촌배 볼링 토너먼트 대회!! 4팀으로 나누어 토너먼트를 진행하였는데 최종 우승팀이 누군지 궁금하신가요?ㅋ 실력이 어마어마 합니다~ㅋ

별마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식자재업체인 푸드머스의 지원으로 저염식과 대사증후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무서운 성인병의 위협을 별마을 건강지킴이가 막아드립니다~~ 타도! 성인병!~~ㅋ

바라봄사진관 | 2017년 06월 24일(토)

성촌의집 이용가족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잘 찍은 장수사진을 갖고 싶다”는 말에 바라봄사진관에 사진촬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맑은 6월에 바라봄 사진관과 포스코건설이 함께 성촌의집을 방문하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외 녹색공간에서 이용가족들 단체사진과 사진관으로 꾸며진 강당에서 개별 장수사진 촬영, 촬영이 끝나고 바로 액자로 만들어 이용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는 동안에는 자세를 잡고 웃고 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들었지만 액자를 받아든 이용가족들의 표정은 한결 같이 행복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행복을 선물해준 바라봄사진관과 포스코건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봄사진관은 사진이 필요하지만 사진 찍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진을 찍어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행복한 동행

가족공원사업단 | 2017년 06월 21일(수)

성촌의집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가족공원사업단의 수목관리팀과 시설팀 이 시설에 모든 녹색공간의 나무와 풀을 다듬어주시고, 물리치료실의 매트를 빡빡 닦아주셨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녹색공간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뽀송뽀송 냄새가 나는 물리치료실에서 오늘도 힘차게 운동중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 2017년 07월 16일(일)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초청한 영흥도 여름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참여한 성촌의집 이용가족들은 신나는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무더위를 잊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와 동그라미 · 누리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촌의집과 함께 해오던 여자생활관 보일러가 2016년부터 말썽을 부리더니 2017년 7월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명을 다한 보일러로 인하여 별마을 여자이용가족분들은 온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샤워를 못하는 불편함은 지금은 견딜 수 있으나,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이 큰 걱정입니다. 새로운 보일러 설치 비용 10,000,000원은 성촌의집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1년 운영비 보조금 60,000,000원에 1/6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1년 동안 사용하는 매월 상하수도요금(월 평균 1,000,000원) · 매월 전기요금(월 평균 1,500,000원) · 난방비 및 연료비(월 평균 3,000,000원) · 이용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월 평균 1,000,000원) 등으로 지출되어야 해서 보조금 운영비 예산에서 공사비를 지출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자생활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님들이 온수물을 끓여서 이용가족의 일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일러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 전원을 모두 끈 상태입니다. 별마을 가족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만K 경동나비엔 중형보일러

보일러 교체 비용 후원방법

1. 네이버 해피빈 보일러교체비지정 모금함에 후원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39776?thmIsuNo=821)
2. 성촌의집 후원통장에 보일러교체비 지정후원금 후원
   (신용협동조합 1131-009-995822 / 국민은행 660401-01-641623 /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 농협은행 301-0072-5929-41 / 우체국 100115-01-000694)
3. 지역사회 성촌의집 보일러교체비 지정모금함에 후원
   (부평우체국 / 부평대로우체국 / 북인천우체국 / 인천갈산동우체국 / 인천동암우체국 / 인천부개동우체국 /
   인천부평6동우체국 / 인천삼산동우체국 / 까레몽 삼산점 / 건강길약국 / 동암중앙치과 / 동암프라자약국 /
   라성약국 / 벧엘약국 / 시흥현대모터스 / 전주콩나물국밥 / 차우차이 / 촌집보쌈 / 현헤어뉴스)

보일러교체비를 후원하신 개인과 법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촌의집 행정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 * 032-422-0573 / 032-425-2571 **

키다리아저씨는 지역사회에서 뒤에서 묵묵히 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시는 곳을 찾아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는

'건이강이봉사단' 이란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에서 부평구에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부평구 여러 사회복지기관을 알아보던 중 성촌의집과 뜻 깊은 인연이 되어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별마을에 방문하였습니다.

성촌의집 이용가족들 식사시간에 방문하여 즐거운 식사 시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건강한 쌀을 후원해주셨으며, 장애인 그 사람에 중심을 두고 그들의 가치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성촌의집에 감명을 받았다며 다음 방문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 렛츠런 인천부평문화공감센터

렛츠런 인천부평문화공감센터는

성촌의집 이용가족들의 자립환경개선을 위한 생활관 내 싱크대설치사업에 2,200,000원의 사업비를 후원해주셨습니다.

렛츠런 인천부평문화공감센터는 마사회의 기부금 및 임직원의 성금 등의 재원으로 인천부평의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촌의집 이용가족들의 자립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여 싱크대설치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싱크대설치사업 진행 시 임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싱크대설치공사가 시작되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렛츠런 인천부평문화공감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원자 명단 (2017.05.01. - 07.31.)

+ 신규후원자를 소개합니다 +

김옥신, 김종임, 윤원태, 한선미

대만빵집, 반딧불봉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렛츠런 인천부평문화공감센터

+ 비지정후원금

개인 : 고종원, 김경진, 김덕진, 김영준, 김옥신, 김용애, 김현보, 김호연, 박점숙, 박헌철, 변진선, 신진자, 유계월, 이춘희, 이향란, 장아름, 장연희, 전경제, 정민영, 정현주, 조성란, 한선미

단체 : 교촌에프앤비, 인천중앙교회, 익산유압

CMS : 김인수, 김현수, 박경진, 박미정, 변문수, 소형순, 손대원, 이상진, 이선, 이수일, 이구형, 이은주(부평우체국), 이은주(성촌의집), 정민호, 조광매, 조근태, 조성순, 조성숙, 정금자, 최경자, 한연숙

+ 지정후원금

이용자결연후원금 : 유정운, 이은주, 임미정

해피빈 보일러교체비 지정후원금 후원자 아이디 : 가시리, 기부콩, 김기철, 김은선, 나我, 다솜, 다솜맘, 둘리, 박명숙, 아포톡신1982, 이미복, 이은성, 이은주, 작도녀, 장연희, 전혜민, 정성웅, 주님사랑, 최기열, 최새롬, 최성희, 최원준, 카느케이, 태은실, 황재우, 혜민맘, fafa5201, liiyh73, sw, watasi20

보일러교체비 지정후원금 : 김용애, 김종임, 김호연, 윤원태, 이미복, 이은주, 이향란, 임명선, 태은실, 부평우체국후원함, 홍성후원함

성촌아카데미사업 지정후원금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용가족 자립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정후원금 : 렛츠런 인천부평문화센터

+ 후원물품

이용가족 나들이지원 : 동그라미봉사단,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이용가족 간식지원 : 대만빵집, 동그라미봉사단, 박경진, 차부떡집, 크롬

이용가족 식재료 및 중식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사랑나눔봉사단, 태양봉사단

시설물 및 차량관리지원 : 반딧불봉사단(이동철), 시흥현대모터스, 이미복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17.05.01.- 07.31.)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12,449,680	1월-4월 지출금	16,225,680
비지정후원	5,363,000	기타후생경비	233,260
기타예금이자수입	37,616	여비	33,300
전년도이월금	31,579,030	수용비및수수료	1,204,290
		공공요금	582,120
		제세공과금	810,000
		기타운영비	1,023,300
		의료재활사업비	30,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3,133,700
		지역자원연계사업비	248,000
		영양관리사업비	1,047,100
		인권사업비	700,000
		차월이월금	24,158,576
합계	49,429,326	합계	49,429,326

자원봉사자 명단 (2017.05.01.- 07.31.)

★ **시설환경정리** : 노현우, 서성준

★ **이용가족 공예프로그램 진행** : 심미소, 이우림, 전주빈

★ **조직문화 직원합창 – 반주와 지휘** : 정예진

★ **조직문화 직원요가 – 요가강습** : 홍유정

★ **대우휘트니스 – 이용가족 스포츠활동 진행 및 지원**

김시현관장, 강찬양, 구미정, 김미옥, 김희숙, 유금용, 유혜린, 윤미숙, 조은서, 진효린

★ **도란도란봉사단 – 이용가족 공연지원**

송태영단장, 김경자, 김재학, 김학수, 김훈자, 동동, 박종희, 신정자, 윤석규, 이선균, 임종태, 한미란, 한종덕

★ **별하나(석정여고 · 신명여고 · 상정고) – 이용가족 스포츠활동 지원**

김태일, 성홍규, 이다현, 이은서, 윤유라, 한윤주

★ **봉사자아카데미 놀다(NOLDA) – 이용가족과 영상만들기 진행**

강경준, 강민재, 강민형, 김연주, 나윤체, 노현우, 문예현, 민경은, 송영찬, 송영채. 용채린, 이성빈, 이승훈, 이지혜, 이희영, 장은빈, 조현우,

★ **사랑나눔봉사단 – 이용가족 중식지원**

이종서단장, 김연숙, 김상철, 김영배, 김정애, 모윤숙, 박경진, 박미숙, 박연화, 윤하늘, 이기현, 이다민, 이하은, 이병섭, 이빛나, 전서현, 전옥남, 전지현, 전성우, 조경선, 진학일, 최종성, 최태훈

★ **상정중 우리들봉사단 – 이용가족 정서지원**

김형진, 강건주, 강건휘, 김민교, 김예은, 김효주, 유나경, 이은서, 이지원

★ **상정중학교봉사단 – 이용가족 정서지원**

나승진, 김지우, 김지수, 안형진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 물리치료실 환경관리 / 수목관리 및 조경

한상열단장, 김영찬, 박상기, 신정은, 임치성, 한옥규 / 목대준, 전이식, 장지영, 조정휴, 최병규, 최철

★ **한국지엠 반딧불봉사단 – 시설물관리 및 수리 지원**

강원희단장, 이동철, 김광태, 김나이, 김순천, 김중석, 남병숙, 이근중, 이인자, 한상일

★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동그라미봉사단 – 이용가족 프로그램 및 나들이 진행**

오헌주회장, 김경숙, 김숙영, 김오분, 김인선, 나태현, 방춘옥, 신철균, 신현범, 이시연, 이은희, 이주현, 임충휴, 전정숙, 정나나, 정유당, 정휘영, 최태운, 최계한

★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태양봉사단 – 이용가족 중식지원**

이명식회장, 김미정, 김영분, 김은심, 김정엽, 김정은, 나영복, 심명임, 이영로, 정효영, 홍유림, 황세동, 오헌주

–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휠체어,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 민 은 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 협 은 행	301-0072-5929-41
우 체 국	100115-01-000694

♥ 모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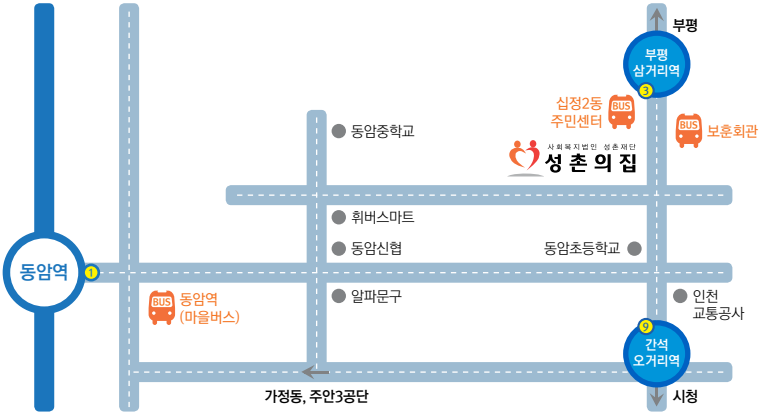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이마트 마일리지 후원

이마트 쇼핑 후 영수증으로 이마트 매장에 비치된 적립기 또는 이마트 모바일앱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나눔활동입니다.(이마트지점 : 인천점 0393)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 촌 의 집

별마을이야기 2017년 세 번째 호 (통권20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아름, 장연희,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